



제목	Muslim Nationalism and the New Turks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Princeton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12. 11. 25.
저자	Jenny White
출판도시	Princeton
페이지수	241
ISBN 또는 ISSN	978-0691155180

내용 요약

이 책은 터키의 국가정체성과 이슬람의 의미와 세속주의가 현재 터키의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내는 방식을 보여주면서, 터키식 모델이 성공 사례 또는 경고적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책이다. 저자는 ‘터키는 누구인가?’, ‘터키 국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’ 라는 질문을 던진다.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터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. 저자는 터키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공식적 입장들을 예리하고 철저하게 분석한다. 저자에 의하면 현재 터키 제3 공화국에서 터키의 정체성은 성 역할, 소수민족, 종교의 자리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.

저자는 현재 터키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터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“무슬림 민족주의”라는 용어를 사용한다. “세속적 민족주의”에 대항하는 개념인 이 용어는 개인적 차원의 무슬림됨에 기초하고 있으며, 터키 공화국보다는 오스만제국의 국가적 역사에 뿌리를 둔 것이다. 이 책에서 저자는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이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흐려놓았고, 세계화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어떤 식으로 지지하며, 소수자와 여성들을 적대하는 문화적 규범과 불관용과 권위주의를 어떻게 여전히 유지하는지를 고찰한다. 이 책은 터키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동시대의 논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.